

住居建築에 나타난 Collage 形態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Collage Form Expressed in the Housing Architecture

南 炯 宇**
Nam, Hyung Woo
金 益 煥***
Kim, Ick Hwan

Abstract

There are various which organize architectural forms. The concept of Collage is one of the ways to understand various situation in the Contemporary Architecture and is needed to be understood to solve problems in architecture, painting, sculpture etc.

Formal characteristic of collage aesthetics proposed by the Cubism appeared to a creative element for a new form in the trends of architectur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the Housing Architecture, The Collage is transposed to the subjective form than the general form, and is used as a method to solve problems such as a perception in interior and exterior spaces and urban contexts.

I. 序 論

建築形態는 건축외적인 다양한 要素들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특히, 주거건축은 建築家의 思想的 背景이나 經驗, 크라이언트의 미적관점이나

경제적능력등이 建築形態의 創造와 變形에 보다 큰영향을 끼쳐왔다. 이와 같이 다양하고 변화적인 요건하에서도 繪畵는 많은 建築家들의 建築言語로 자리잡아 왔으며 繪畵의 幾何學的 抽象 要素가 建築 形態 創造에 지대한 貢獻을 한 것은 否認할 수 없는 사실이다.

* 본 논문은 한국주거학회 92년도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내용중 일부를 보완한 것임

** 정희원, 금오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강사

*** 정희원, 금오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조교수, 공박.

14세기 말에 시작되어 르네상스기에 理論化된 원근법이 19세기 세잔느(Cezanne)에 의해 崩壞되어지고, Cubism이 登場하게 되었다. 建築形態를 지배하던 繪畵에서 Cubism의 登場은 建築의 形態를 더욱 多樣하게 發展 시키는 契機가 되었다. 그리고 입체파에 대한 근본적인 要素인 非對稱, 透明性, 體積의 相互浸透性, 知覺의 同時性 등은 각각이 개별적인 原理로서 建築 景觀에 포괄적으로 適用되었음을 알 수 있다.

Cubism이 제시한 Collage 미학의 造形的 特徵은 회화 사조에서의 새로운 조형탐구 뿐만 아니라 建築에서도 새로운 形態 創作 要素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본 研究는 이러한 관점에서 Cubism 構成 要素中 體積의 相互浸透性, 즉, Collage 형태가 現代의 새로운 건축 傾向인 新構成主義와 解體主義에 깊게 活用되어 現代住居建築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着眼하여 建築形態에 어떻게 關聯되고 주거행태에 어떤 影響을 미치고 있는가를 分析하여 혼란스러운 樣相을 띠고 있는 現代建築의 形態創作에 도움을 주고자함이 그 目的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근대건축 이후의 건축작품을 중심으로 고찰하며, 대상작가와 작품은 일반적으로 현대건축의 2,3세대로 불리어지는 작가들 즉, 2차대전 이후의 건축가와 작품을 주 대상으로 한다.

II. 주거공간에 나타난 Collage 형태의 고찰

1. Collage 형태의 시각

Collage 형태의 사전적 의미는 프랑스어로 풀칠, 풀칠하여 붙이기의 뜻을 가진 것으로 여러 층이 겹쳐있는 형태를 뜻하고, 다른 용어로는 파피에 콜레(Papier Colle) 그리고 아셈블라쥬(Assem Blage)라고도 불리어진다.

建築에서의 Collage 형태는 重疊性(superimposition), 同時性(simultaneity), 相互貫入

(interpenetration), 不安定(ambivalence), 時空(space-time), 透明性(transparency), 重疊(superimposed), 多層(multilayered) 등과 종종 同義語로 사용되고 있다.

Collage 현상은 認識對象들이 同時에 二重構造를 지닌 對象으로 나타나고, 서로의 意味가 混雜되거나 重疊되어 이미지상으로는 같은 意味를 지닌다. Collage 현상이 內包하고 있는 意味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원래 의미와는 다른 形態와 美를 創出한다는 점이고 두번째는 空間의 깊이를 가지며 이 깊이는 透明性을 誘發한다는 점이다. 또한 Collage 형태는 보이는에 따라 고정된 이미지가 아닌 反對感情까지 竝存할 수 있으며 時空間에 따라 다르게 드러나는 것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建築에 Collage의 意味가 도입된 것은 Cubism 繪畵 이후이다. Cubism에서의 Collage의 美學的 적용은 매우 範圍가 넓으며, Collage의 發想은 20세기 美術史 全體를 連結할 만큼 그 意味가 크다. Collage와 Cubism의 影響에 대한 최근의 재평가는, 建築에 있어서 Collage의 復興으로 나타난다.

建築에 適用된 Collage 技法은 엄밀히 말해 파피에 콜레의 영향이 크다. 이 것은 종이만을 사용하는 파피에 콜레의 技法을 말함이 아니라, 파피에 콜레가 追求하는 造形的인 문제가 建築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建築에서의 Collage形態는 Gyorgy Kepes에 의해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¹⁾

“우리가 두개 혹은 그 이상의 形態가 서로 重疊되고 그 각각이 共通의 重疊된 부분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空間的 크기의 順序에 直面하게 된다. 이러한 順序를 解消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각상의 특징적 存在를 推測해야만 한다. 形態에는 透明性이 부여된다. 즉, 形態는 서로 視覺象의 파피에 없이 상호 貫入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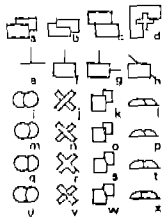
그러나 透明性은, 단순한 特徵 이상의 것보다 광범위한 空間的 秩序를 意味하고 있다. 透明

1) Transparency, Literal and Phenomenal Part II, Perspecta 14, p.288.

性은 空間的으로 다른 次元에 存在하는 것을 동시에 知覺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空間은 단순히 後退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活動하면서 앞뒤로 요동치고 있다. 透明한 形態의 位置는 각각의 形態를 가까운 것으로서도 볼 수 있고, 또 멀리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애매모호한 二重性을 지니고 있다.” 고 정의 내렸다.

Collage 形態를 理解하는데 있어 圖解的 分析은 그 基礎的 過程에 속한다. 圖解的 分析은 心理學的 側面에서의 分析과 形態論的 側面에서의 分析으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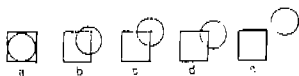
먼저 心理學的 側面에서 Collage 形態를 살펴보면, 重疊의 2次元的인 知覺이 共通의 輪廓 이외에 단순한 圖形으로 끊기던지 아니면 그것에 얽혀 있는지에 달려있음을 나타낸다. 다시말해 圖形의 輪廓에 의해 두면의 깊이가 다르게 解析되는 形態이다. 이러한 事實로 부터 重疊形態는 背後의 遮斷, 共通輪廓, 프레이밍(framing)으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림2-1)



<그림 2-1> 심리적 중첩형태

두번째로 形態論的 側面에서의 Collage 形態는 空間의 깊이와 透明性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림2-2)는 空間의 깊이의 진행단계를 체험할 수 있는 基礎的 圖形이다.



<그림 2-2> 면의 중첩에 의한 깊이 지각

a는 정사각형과 원의 단순한 配置가 강하게 뭉쳐진 전체 패턴을 이루고 있고, 정사각형과 원의 中心은 서로 一致하고 있으며 원의 直徑은 사각형의 변과 일치한다. e에서는 최대한의 분할이 보여지고 있다. 패턴a의 전면적인 對稱에서는 두개의 단위들이 험령하게 이탈되어 있어서 서로 접촉하거나 對稱關係에 있지 아니하다. b, c, d는 上下 重疊의 例로서, 세개가 모두 두개의 하위 단위들로 갈라짐으로서 전체의 統一感을 감소 시키고 있다. 非統一의 性格은 셋중에서 c가 가장 약하다. 그 이유는 c에서는 원의 중심이 사각형의 대각선 위에 놓여 있고 사각형의 귀퉁이 한개와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것이 대각선 축을 중심으로 對稱을 이루면서 전체의 統一感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다. a와 e는 緊張感이 없다. a에서는 위치 크기 형상에 있어서 두단위가 서로 잘 맞기 때문에 아무런 衝突이 일어나지 않는다. b, c, d는 緊張이 뚜렷이 느껴진다. 사각형과 원을 서로 합치든지 서로 떼든지 하는 양단간의 해결을 내는 쪽으로 그 위치를 옮기려고 하는 듯이 보여진다. 2)

2. Collage 형태의 유형별 특성

(1). 선적 요소

幾何學的으로 생각할 때 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다. 이것은 점이 움직여 나간 흔적, 다시말해 점이 만들어낸 所産이다. 여기서 靜的인 것이 方向性을 가지게 되고 力動的인 것으로 飛躍하게 된다.

線은 面내에 있을때에는 너비가 있고, 空間內에 있을때는 굵기가 있다. 그 너비, 굵기는 여러가지이고 輪廓에 따라서 모양도 여러가지이다. 또 선은 폭이 넓게 되면 面이 되고, 굵기를 키우면 立體 또는 空間이 된다.

선은 건축에서 축을 의미하고 축은 건축물의 운동방향을 결정한다. 축은 건축의 기능, 대지와 작가의 의도등으로 인해 변화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축의 置換과 重疊이 있을 수 있다. 3)

2)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역, 기린원, 1988, pp.321-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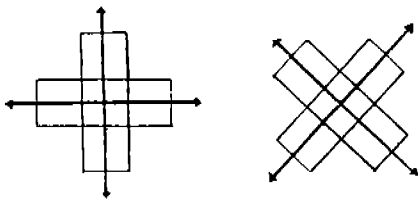
3) 강명구, 조형의장론, 문운당, 1983, p.81.

線을 建築에 있어서 軸의 要素로 본다면 重疊되지 않는 線은 存在하지 않는다. 완전한 平行關係에 있는 두선도 한 방향의 反復으로 해석되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平行現象의 關係가 導入되었음을 意味하며, 同一한 角度의 反復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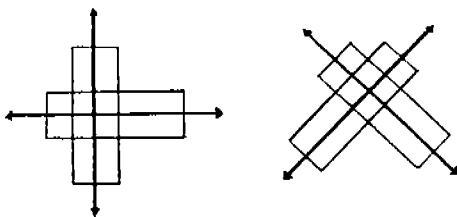
建築形態에는 線의인 方向이 있는데 그것은 平行的인 方向과 立體的 方向을 前者가 垂直, 水平, 對角線을 表現된다면, 後者는 運動의 方向을 뜻하는 것으로 내방, 외방, 사각운동으로 分類할 수 있다. 또한 方向性등을 구체화시키는 것은 軸性이라 할 수 있는데, 어떤 空間에서 軸을 認識하는 것은 그 空間 内部에 存在하는 힘의 作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오늘날 現代建築에서는 軸에 따른 움직임을 의도하지 않는 대신에, 유도하는 要素들에 의해 組織하는 方向을 導入하고 있으며 軸이 꺾이는 部分은 空間흐름의 方向이 變化되는 部分이 되고 視覺的, 心理的으로 중요한 部分이 된다.

軸의 重疊類型은 均一角을 가지며 두축의 중심이 일치하는 A Type(그림2-3)과 非均一角을 가지며 두 축의 중심이 一致하지 않는 B Type(그림2-4)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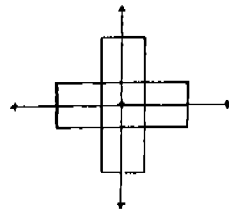


<그림 2-3> 중심이 일치하는 중첩유형(A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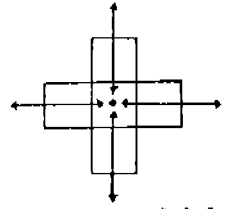


<그림 2-4>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 중첩유형(B type)

A타입은 두개의 空間單位가 각각 가늘고 긴 均衡으로 그 자체의 긴 축을 따라서 空間이 움직이게 된다. 이 類型에 의한 空間은 자유로운 움직임, 流動感 그리고 그것들과 兩立하는 중심성의 성격을 부여할 수 있게한다.(그림2-5) 이와 동시에 여기에는 축의 역방향성에 의한 중심성이 共存하고 있다.(그림2-6)



<그림 2-5> 중심성 형태



<그림 2-6> 중심성과 원심성의 공존

B타입은 주로 Urban Context, 外部空間, 内部空間要因 등과 같은 要素들이 複合的으로 作用하여 나타난다.

B타입과 같은 形態는 面에 대해 느슨한 形態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線은 面과 融合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面을 뚫고 지나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A타입은 空間의 生成에 의해 자연스럽게 發生되는 경우가 많고 B타입은 外部因子들의 要因에 의해 설정된 軸에 의해 空間이 形成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B타입은 서로 다른 方向性的 크기에 의해 發生되는 膨脹과 壓縮에의에 運動感 緊張感등을 부여한다.

(2). 면적 요소

面은 空間을 構成하는 要素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面은 각각 特有의 표정을 가지고 있으며, 建築에 特色있는 形態를 부여한다. 面의 表情은 주로 面을 決定하는 直線 또는 曲線의 표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建築形態를 構成하는 要素를 空間(space)과 mass라고 한다면, 面은 그것들을 境界짓는 要素이며, 空間과 mass의 關係를 규정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面의 構成은 mass의 形體만이 아니라 空間의 展開와 關係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空間은 다수의 面이 지나고 있는 相互의 位置 關係에

의해 決定되는 것이며, 보는 사람과 知覺形態와 關係를 決定하는 가장 중요한 要素라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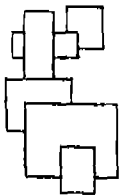
모든 空間的인 깊이는 面의 重合으로 知覺되며, 그 重合의 方法은 面의 輪廓에 의해 決定된다.

그리고 空間的인 知覺形態의 理論을 창시한 Hilde Brand는 깊이의 표상은 面의 重合으로 생겨나지만 그것을 知覺하는 것은 결국 面의 輪廓에 의하는 것이고 知覺形態의 關係는 輪廓線에 지배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림 2-7)



<그림 2-7> 면의 전이 현상

또한 Kepes는 面의 重合을 空間的 깊이에 의한 透明性으로 해석했다. 그는 面의 重合에서 물질적인 透明性을 제거하고 그 空間的인 秩序만을 파악하는한 事實과 暗示가 面의 重合이 지니는 일반적 현상에 속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Kepes에 있어 重合된 面은 나타난 面속에 숨겨진 面이 概念的으로 推論될 可能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그림2-8)



<그림 2-8> Kepes의 중합면

空間層의 形成에 의해 導出되는 方向性은 面에 힘을 부여하고 緊張感을 誘發시킨다. 生成된 이 힘들이 모여 全體 空間의 역동적 形態를 推論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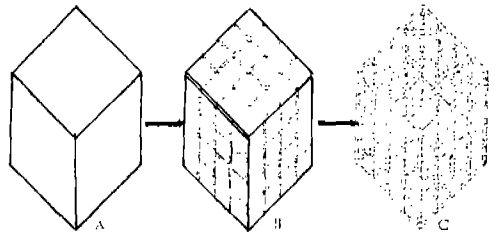
(3). 공간 요소

空間은 點, 線, 面의 構成에 의하여 成立된다. 建築이라는 전체 空間은 이와같은 單位空間을 構成要素로 하기 때문에 單位空間은 空間構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建築은 본래 空間的으로 人間이 生活의 內部空間을 만들기 위하여 큰 空間의 일부를 막아 버리는 技術로 發展한 것이므로 建築 內部의 주요한 目的이란 空間에 方向性을 附與하는 것이 아니라 空間을 둘러 막는 것이며 內外를 斷絶하는 것이다.

空間 구성 手法은 單位面들의 집합에 의한 構成과 mass의 分節에 의한 構成으로 대별할 수 있다.

單位面들의 集합에 의한 構成은 가장 일반화된 공간구조 수법이며 mass의 分節에 의한 構成은 轉移形態를 만드는 構成 手法이다. (그림2-9)



<그림 2-9> 면의 전이 과정

그림A를 격자 grid로 잘라내어 B로 轉換시키고, 여기에서 다시 solid한 부분을 轉換시켜 void한 C形態가 된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격자 grid는 그 形態의 結合을 轉換하거나 逆轉 시킬 수 있게 만든다.

다시말해 solid한 A 圖形에서 positive solid한 B 圖形이 되고 다시 negative void한 C 狀態가 되는 것이다.

이 mass의 分節에 의한 方法은 void와 solid 그리고 陰과 陽의 각각 다른 圖形을 발생 시킨다.

두 空間이 相互 貫入 되면서 겹쳐서 생략되어

진 공간은 不完全하게 知覺되지만 그 對象들은 온전한 全體로 知覺된다. 즉, 重疊된 對象의 部分들을 除去하는 屬性과 對象을 組合하는 屬性을 가짐으로써 두 공간은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전체로서는 새로운 動的 體系가 形成되는 것이다.

또한 두 공간의 重疊은 對立的 樣相을 띠면서 融化的 樣相도 同時에 內包하고 있다.

즉 void한 공간과 solid한 공간의 重疊은 閉鎖性과 開放性의 對立的 樣相을 보이면서도 두 接點의 자유로운 流動이 發生하는 것이다.

單一 공간에 竝存 할 수 없는 두가지 樣相, 즉 void와 solid, positive와 negative, hard와 soft, 內部空間과 外部空間을 두 接點에서의 緊張을 통해 通有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現狀은 接點에서는 對立된 두 形象에 의해 緊張이 分散되어 한 공간에 대한 知覺의 심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發生된다.

공간에 重疊形態가 사용되는 이유는 여러가지로 分析할 수 있는데 크게 Urban Context, 內部空間感, 外部形態의 문제해결로 사용되어 진다.

3. 사례연구를 통한 Collage 형태 분석

(1) House 3 (Lakeville, Connecticut, Peter Eisenman: 1969-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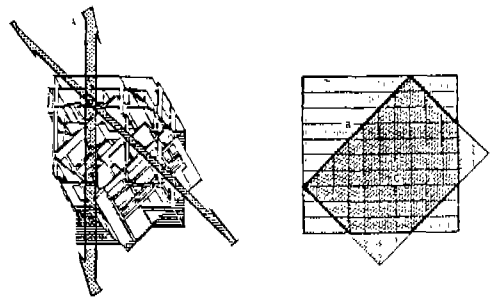
주택 3호는 重疊形態의 複合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內包하고 있는 건축물이다. 構造, 볼륨, 技能, 空間, 그외의 모든 것을 45°로 回轉시켰다. 이 體系에서 볼륨은 平面의 擴張으로 볼 수 있고 平面의 나머지 部分들은 線과 기둥이 된다. 여기서 기둥격자들과 전단 벽면과는 主된 對立關係를 보여 준다. 브릿지와 open된 공간은 방의 공간을 統合시키기도하고 分離시키기도 한다.

住宅 3호의 重疊形態는 「立體의 45°回轉 - 面의 分割-立體와 面의 離脫-空間그리드 體系와의 對立」이라는 複雜한 過程으로 形成된다.

이런 複雜한 過程에 의해 線, 面, 空間등의 重疊構成要素가 複合의으로 작용한다. 線重疊(A), 즉 置換에 의해 空間의 方向性을 부여하고 內部空間의 發展的 처리가 可能하며, 面 중첩(B)

은 두 면의 중첩에 의해 발생하는 윤곽선에 의해 solid와 void, 陰과 陽의 對立은 閉鎖된 空間을 자연스럽게 擴張시키며 透明性을 유발한다. 마지막으로 空間중첩(C)은 單純圖形의 重疊을 통해 새로운 形態가 創造되며 공간의 중첩에 의한 주거행태의 변화를 수반한다.

결론적으로 주택 3호는 평평한 공간과 깊은 공간, 壓縮과 引張, 正面과 斜面이라는 要素들을 竝列의으로 重疊 혹은 對立시키고 있다.



<그림 3-1> House III 공간분석도 및 Collage 유형

(2) House 10 (A Plan, Peter Eisenman: 1975- 78)

주택10호는 아이젠만이 추구해오던 순수한 形態主義的 작품태도로서는 마지막 작품이며, 解體主義的 傾向을 豫見하는 最初의 작품이다. 이 주택은 의견상 단일 주택이지만, 실제로는 4개의 단편적 주택의 集合이다.

주택 10호는 全원적 환경중 公的領域, 즉 外部의 要素를 個人의 住宅 內部에 導入한 것이다.

이 주택의 기본 形態는 L자형 mass이다. L자형 mass의 單純 變形을 통한 선과 평면등의 連續的 線上 展開가 아니고, mass의 回轉과 停止의 反復을 통한 視覺上의 錯視效果를 이용해 內部空間을 融合하고 分割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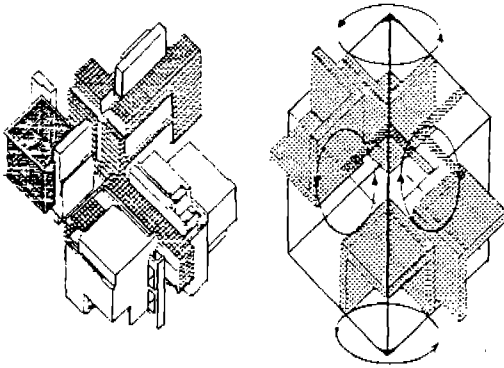
이 L자형 mass의 垂直的, 水平的 構成要素는 內部空間을 자연스럽게 構成하며 이 構成에 의해 全體의으로 open된 주변을 形成하여 外部와

의 擴張을 유도한다.

주택 10호는 回轉과 停止, 透明과 不透明, 逆 Domino計劃과 같은 이질적인 要素들의 重疊을 통해 完全한 透明感을 誘發 시키려고 하였다.

이질적인 重疊은 分解와 變形의 逆轉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정형화된 形態가 導出되며, 이 정형화된 形態는 自然과의 완벽한 조화를 통해 완전한 透明感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완전한 透明感은 벽, 기둥, 바닥 그리고 천정이라는 建築的 要素를 모두 点, 線, 面積인 形態로 置換해 버린다. 이것은 기둥-벽-공간으로 人間을 통과 시키는 변환 시스템이다.



<그림 3-2> House X Axnomenric 및 L형 mass 구성도

(3) 아일랜드 수상관저 (Dublin, Zaha M. Hadid: 197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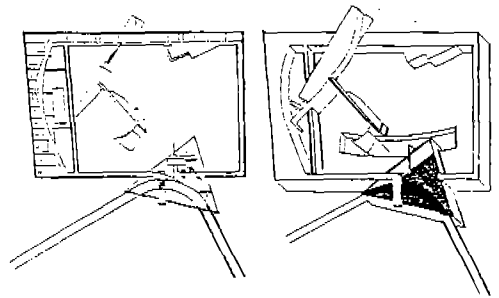
하디드의 디자인에서 가장 독특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作品으로서 전체의 디자인 要素들은 불규칙한 幾何學 단편속에서 室內의 가구와 장식들이 건축물의 一部로서 空間속에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平面的 形式은 중력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감각과 수상관저라는 딱딱한 느낌에서 해방감을 주도록 디자인 되었다.

정방형의 단순한 outline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연을 형상화한 보도와 실내의 가구와 장식들

과 같은 不規則하고 幾何學的인 단편들이 重疊 技法을 통해 서로 連結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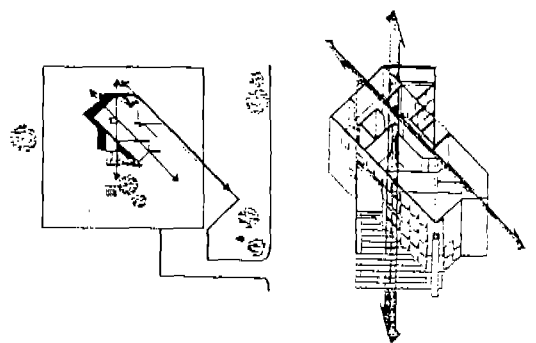
중첩면을 이용한 실내공간의 자연스러운 분절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이과정은 自然의 道路와 人間의 動脈을 建築的으로 形象化 하여 인공조형물의 자연적 識屬을 그 目標로 하고 있다.



<그림 3-3> 아일랜드 수상관저 평면도 및 Axonometric

(4) Hoffman House (East Hampton, New York, Richard Meir: 1966- 67)

이 주택은 대지의 屬性을 잘 수용하고 있다. 도로에서 볼 때 이주택은 幾何學 形象이 맞물린 3차원적 추상체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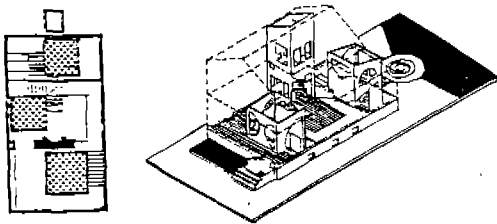
<그림 3-4> Hoffman House 배치도 및 공간분석도

道路와 45°의 각도로 틀어진 幾何學體와 平行한 幾何學體가 맞물려 形成 되었다. 다시 말해 直角의 조직체와 對角線의 조직체가 空間的으로 相互 交接되면서 주택이 만들어 진 것이다.

45°의 의도된 기하학체는 주택의 어프로치 라인과 평행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 구성방법에 의해 사선방향의 도로를 따라가면서 외부공간감을 다양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져 있다. 또한 실내에서의 교접된 부위는 open된 아트리움 형식으로 연출되어 자연과 구조체의 일치감을 추구하였다.

(5) Moore House (New Heaven, Connecticut, Charles Moore:1966)

100년이나 된 작고 垂直 形態의 이 주택은 아이들이 집을 그럴때 잘 그리는 집과 유사하다. 이 주택의 外部는 單純한 木造 주택이지만 内部에는 기존 장방형 frame에 3개의 독립된 Complex를 重疊시켜 소규모 空間을 擴張시키고 있다. 이 집의 内部 디테일의 3개의 사각 수직관은 일부는 커다란 가구로써, 일부는 공간내의 오픈된 軸으로써 각층 사이에 挿入되었다. 이 관들은 더 큰 形態를 암시하기 위해서 창문과 같은 구멍이 뚫려져 있다.



<그림 3-5> Moore House 평면도 및 Axonometric

이 形態는 정통적인 탑과 공예품적인 양상을 지니고 있으며, 3개의 관은 Howard, Berengaria, Etherl이라고 명명되었으며 이들이 어우러져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매우 幾何學的인

秩序로 이루어져 기존 주택의 空間 構成과 커다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주택안의 주택형태를 추구함으로써 실내거주자가 마치 외부 즉, 자연에서 건축경관을 바라보는 듯한 착시현상을 유발시키고 실내공간을 색상, 소품, 벽등을 이용한 단순한 변화가 아닌 연속적인 형태의 변화를 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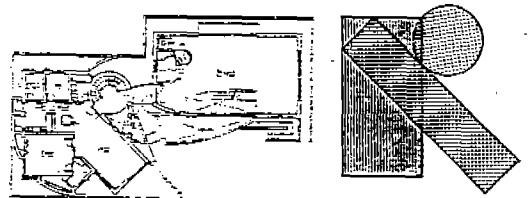
이와 같은 幾何學的 秩序와 空間에서 탈피하려는 극적인 상황의 대조를 통해 活動的이고 劇的인 空間을 창출하고 있다.

(6) 연남동 주택 (서울, 김영섭:1991)

이 건물은 두가지 相異 要素를 결합하는 방법론적 측면으로서 Collage 기법을 사용하였다. 相異 形態나 要素의 결합에 의해 나타나는 形態는 두가지 의미로 해석되어진다. 첫째는 결합에 의해 개별 形態의 특징을 더욱 더 부각시키는 의미이고, 둘째는 개별 형태 의미가 희석되고 융화되어 개별 의미와는 다른 독창적인 의미로 재창출된다는 것이다.

이런의미에서 본 작품을 고찰하면 이 건물은 주택과 전시실이라는 두개의 독립적 공간을 하나의 mass로 통일하기 위해 Collage 기법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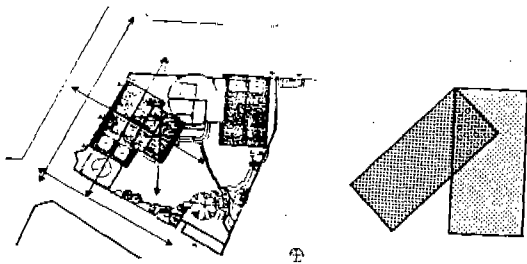
이질적인 두 공간의 완충을 위해 중첩부분에 원형계단과 軸이 變形된 거실공간을 만들었다. 원형계단과 거실공간은 주택과 전시실중 어느 한공간에 극단적인 치우침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적 배치이다.



<그림 3-6> 연남동 주택 평면도 및 Collage 유형도

(7) 정릉동 S주택 (서울, 장세양:1991)

이 건물도 연남동 주택과 같이 근린생활 시설과 일반주거시설의 결합과 대지의 형태에 의한 軸의 置換으로서 Collage 기법이 사용되었다. 주택부분은 가로축과 평행하게 구성되어 있어 Hoffman 하우스에서 처럼 다양한 주변경관을 감상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두공간의 중첩부분에는 軸의 變形에 의해 발생된 예각과 둔각 형태의 다용도 공간을 배치해 이용자가 軸의 물리적 변화를 크게 인지하지 못하도록 구성하였다. 이 건물은 창조적 형태를 위해 Collage 기법을 사용한것이 아니라 공간의 충돌에 의한 변화를 줄이고, 대지의 난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Collage 기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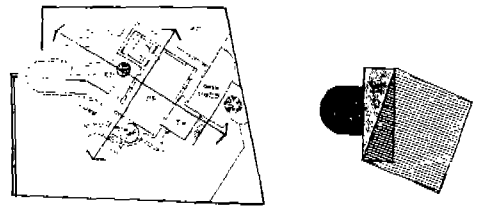


<그림 3-7> 정릉동 S주택 배치도 및 Collage 유형도

(8) 판교 Y 씨택 (경기도 판교, 허서구, 1991)

이 주택은 가장 한국적인 Collage 형태를 내포하고 있는 건축물이다. 이 주택은 먼저 대지의 형태에 대해 건축물이 30도 각도로 꺾여져 배치되어 있으며, 식당부분은 원형으로 분리되어 배치되어있다. 이러한 배치방법에 관한 주된 문제는 건축주의 풍수지리학적 요구에서 출발하였다. 대지의 형태와 주변여건과는 무관하게 건축주가 요구하는 인자들을 수용하다 보니 평면, 입면등의 후속작업에서 지나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원형식당 부분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의해 나타난 전형적인 결과이다. 주변주택들과 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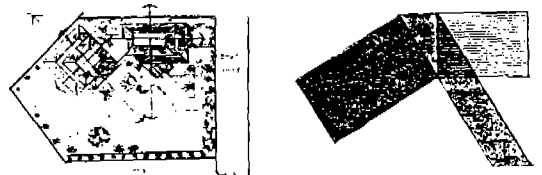
담장에 순응하기 위해 원형의 형태를 가지면서 방향을 틀어놓았다. 이러한 결과로 식당과 본건물이 충돌하는 사이공간에는 어쩔 수 없이 작은 중정을 가지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건축물은 Collage 본래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조각들을 덮보이는 형태"를 가장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할수 있다.



<그림 3-8> 판교 Y주택 배치도 및 Collage 유형도

(9) 평창동 주택 (서울, 김성택, 1991)

이 주택은 건물이 앞하는 대지와 진입도로와의 레벨이 10M나 되어 원활한 어프로치의 설정을 위해 중첩기법을 사용하였다. 내부적으로는 주 도로에 평행하게 배치된 서비스 영역공간과 45도 각도로 꺾여진 사적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이에는 반층정도의 레벨 차이를 두어 평면적인 공간의 돌반적 변화를 입면적인 요소로 전환시켜 변화감을 완화시켰으며 두 건물중앙에 주출입로를 배치함으로써 출입자가 이질적 두 공간의 변화에 자연스럽게 순응하도록 하였다. 또 공간의 분절에 의해 주방 위생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축의 변화에 의해 도로를 따라가면서 관찰자에게 다양한 형태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 3-9> 평창동 주택 배치도 및 Collage 유형도

(10) 대전 이교수택 (대전 김억중, 홍진기, 허남,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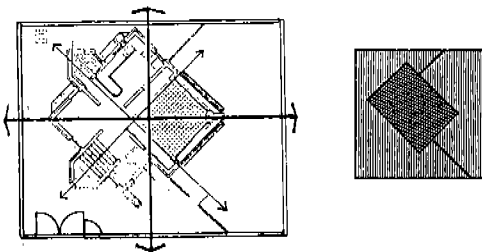
이 건축물은 담장의 새로운 해석을 통한 중첩 유형이다. 담장을 대지소유를 구분하는 경계로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실내와 옥외간의 공간의 성격, 효과, 의미를 가져오는 건축구성요소로 간주하였다. 또 어프로치라인과의 관계를 동시에 규정하는 요소로도 적극 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도로서 담장과 건축물과의 사이공간이 "남아있는 땅"이 아닌 "계획된 땅"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즉, 앞뜰은 내부공간의 연장계획으로 뒷뜰은 출입, 주차와 같은 서비스공간으로 계획되었고, 이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위해 내부담장요소를 중첩시켰다.

이 담장은 상징적 의미로만 느낄 수 있으며, 집이 담장과 관계에서 45도로 회전시켜 배치된 것과 그 크기로 보아 오브제로 느껴지는 구성은 담장의 지 (Ground)역할과의 대조에서 연유된 것이지 집을 처음부터 오브제로 만들어 보겠다는 선입관의 산물은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로 거실과 옥외공간의 적극적인 개방성과 내부공간의 확장에 따른 형태의 전이를 느낄 수 있다.

Collage 유형 분석도

건축물	기본도형	집근장식	표면인식	담장 유형					
				내부공간	외부공간	1:1	1:1	1:1	1:1
House 3	정사각형	축의 45° 회전 및 mass중첩	표면인식의 중첩	○	○		○		
House 10	정사각형 직사각형	mass중첩 및 대입	담면상의 중첩		○	○	○		
아이랜드 수실관지	정사각형 산적형	mass관입	담면상의 중첩		○		○		
Hoffman House	직사각형	그리드의 45° 회전	담면상의 중첩		○	○			○
Moore House	정사각형	내부mass	담면상의 중첩	○			○		
연남동 주석	정사각형 원형	내부mass 중첩	담면상의 중첩	○	○				
정릉동 5 주택	정사각형	기둥에 의한 축의 회전	배치상의 중첩	○				○	○
간교 Y 주택	정사각형	대외면대 및 동수학적 측면	배치상의 중첩	○				○	○
정릉동 주택	정사각형	표외면에 의한 축의 회전	담면 및 배치상의 중첩	○	○	○		○	
대전 이교수 주택	정사각형 사선	mass관입	배치상의 중첩	○		○	○		



<그림 3-10> 대전 이교수 주택 배치도 및 Collage 유형도

III. 結論

本 研究는 多元的인 樣相을 띠고 있는 現代建築 디자인 傾向을 Collage의 概念으로 考察하기 위한 시도로서 Collage 형태를 Cubism繪畵에서 導出시켜 그 형태적 개념과 類型別 특성을 고찰하고 현대 주거건축에서의 활용방법과 발생원인을 現代 建築家들의 作品을 통해 分析해 봄으로써 그들의 作品에 나타난 Collage의 樣相과 接近方式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얻어진 研究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空間에 Collage의 概念이 導入된 것은 Cubism이후이며, Collage의 概念은 Cubism의 形態構成 要素중 面의 解體와 分節 또는 面의 轉移에 따른 空間의 重疊등과 같은 요소로 건축에 계승되어왔다.

(2) 重疊性을 知覺한다는 것은 空間과 形態를 輪廓線의 密度나 結關係 그리고 空間의 깊이감

을 視知覺을 통해 감지하는 것으로서, 空間의 깊이가감은 形態에 透明性和 變化感을 주어 重疊性을 發生시키는 要因이 되고 있다.

(3) Collage 기법에는 線, 面, 空間요소와 같은 3가지 유형이 있으며, 주거건축에서 Collage 형태의 활용이유는 方向性, 轉換性, 透明性, 創造性, 地形性, 文脈性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유형중 方向性和 轉換性은 내부공간에 생동감과 변화감을 주기위함이고, 透明性和 創造性은 무한히 확장되는 외부공간과 창조적 형태를 창조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地形性和 文脈性은 Urban Context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과 자연에 융화된 공간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한국의 주거건축에서는 Collage 형태가 지형적인 문제와 건축주의 요구에 의한 공간들을 수용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사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住居建築에서의 Collage 형태는 다원적인 현대 생활에 부응하기 위해 건축물에 양면성을 부여했으며 이 양면성은 내, 외적 공간에 있어서 또다른 형태로 작용하여 현대건축의 design 경향과 동선, 가구배치 등과 같은 居住行態를 변화시켰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형태를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모두에게 공감할 수 있는 건축 형태 표현에 있어서 새로운 체계 확립을 위한 기준 설정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된다.

參 考 文 獻

- 1) 강명구, 조형의장론, 문운당, 1983.
- 2)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심리학과 교수실편, 심리학개론, 고려대 출판부, 1979.
- 3) 임승빈, 환경심리 형태론 - 환경설계의 과학적 접근, 보성문화사, 1988.
- 4) Van C.v.d, Space in Architecture (건축공간론), 정진원, 고성룡 공역, 기문당, 1987.
- 5) Kandinsky, W., Punkt und Linie zu Flach (점, 선, 면), 차봉희역, 열화당, 1988.
- 6) John Golding, Cubism(큐비즘), 황지우역, 열화당, 1988.
- 7) Gyorgy Kepes, The Language Vision, Chicago : Paul Thiebold, 1974.
- 8) James J.Gibson, The Senses Considered as Perceptual Systems, Boston : Houghton Mifflin, 1966.
- 9) 권태문, 김진일, 현대건축 조형이 현대회화에서 받은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88.
- 10) 김광현, Colin Rowe의 "현상학적 투명성"에 관한 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86.
- 11) 김상균, 건축공간의 인간행태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84.
- 12) 김영태, 현대건축에 있어서 탈큐빅 공간형태의 역동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89.
- 13) 장선규, 플라주의 전개와 그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 다다이즘의 플라주의를 중심으로,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85.
- 14) 정준모, 플라주의법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85.

